

4차 산업혁명과 노동 이슈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막히는 교통 속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과거라면 택시기사의 의견을 따랐다. 요즘은 승객도 택시기사도 모두 네비게이션을 켜다. 네비게이션은 현지점에서 가장 빠른 코스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5분마다 재검색해서 언제나 가장 빠른 길을 제시한다. 스마트폰과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생활환경을 혁신한다. 네비게이터, 스마트워치를 통한 건강관리, 앱을 통한 대리운전·배달·택시 호출 등은 이미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무인자동차, 드론을 이용한 배송, 인공지능을 이용한 주식투자·의료적 진단·법률적 판단 등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장면을 보아버렸다.

현재와 미래의 이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가상과 현실이 융합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O2O 융합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이 과정은 만물인터넷이 오프라인 세상의 정보를 온라인의 클라우드로 끌어올려 빅데이터를 만든 후, 인공지능이 이를 처리하여 예측과 맞춤으로 다시 오프라인 세상에 최적화를 제안한다는 것이다(이민화, 2016). 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Industry) 4.0, 미국의 스마트 아메리카, 일본의 재흥 전략, 중국의 제조 2025 등은 4차 산업혁명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디지털기반 지능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비약적인 발달과 그로 인한 생산과정의 변화는 ‘산업’뿐만 아니라 ‘노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의 수는 대폭 감소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일자리의 근속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일자리의 질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일하는 사람의 종사상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달라진 근로환경 속에서 적정 수준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익의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이 외에도 노동과 관련된 이슈는 많다.

본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번 호와 다음 호의 특집을 기획하였다. 독일 정부에서 발간한 ‘노동 4.0’ 백서 중 ‘4장 노동 4.0의 과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4월호와 5월호의 기획특집으로 소개한다. 독일은 산업혁명 4.0을 선도하는 국가이다. 독일 정부는 인더스트리 4.0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망라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서 노동 4.0 백서를 발간하였다. 백서에서는 노동 4.0의 과제로 취업능력의 제고, 근로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 강화, 서비스산업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근로자 정보보호 강화, 공동참여와 공동결정,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사회복지국가의 확립 등의 8가지를 들고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 및 4차 산업혁명이 노동세계 및 노동자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제 도약을 이루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의 디지털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디지털을 이용한 지능혁명의 성과를 가르는 것은 기술혁신 자체가 아니다.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의적 인간이 필요하다. 창의적 인간은 고립되어 부분적인 일을 함으로써 만들어지지 않는다. 야후가 재택근무를 폐기하고, 애플이나 구글이 전 직원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작업장 구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여 있으되 자신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토론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조기반 또한 필요하다. 토론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고, 재토론을 통해

서 수정하여 재상품화하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혁신과 생산성 혁명이 나타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혁신의 시대, 소수에게 집중되는 혁신의 성과를 어떻게 여럿에게 배분하는가에 지능혁명의 성패가 갈린다고 볼 수 있다. 기술혁신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이 급변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노동안전·적절한 보상·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술혁신은 극소수의 성공한 사람과 대다수의 패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성공적이고 진보한 사회의 모습은 아니다.

디지털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가가 구성원의 행복과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강력한 재분배제도와 규제, 법의 재정비가 동시에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앱의 발달이 근로자로 불리기 어려운 특고를 양산하거나 일과 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을 이미 보고 있다. 만일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디지털 기술혁신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더 여럿에게서, 더 심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본 특집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변화가 개인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갖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KCL**

참고문헌

- 이민화(2016),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 창조경제연구회.